

2025년 세계 각지에서 발행한 뱀띠 해 우표들



유엔의 금수화 뱀

우표 도안에 서로 얹히고 머리와 꼬리가 연결된 네마리의 금수화(錦綉花) 뱀이 그려져있다. '을사년'과 '뱀'이라는 중국어 글자 또한 매우 눈에 띈다.



타이 공주의 손그림 우표

타이의 음력설 경축 우표는 타이 공주이자 중국과 타이의 우호사절인 마하 자크리 시린톤이 직접 그렸다. 우표에는 공주의 친필 싸인도 있다.



일본, 뱀해 복 기원

우표에는 가와사키 거천(川崎巨泉, 1877~1942)의 민간 완구 시리즈 삽화가 사용되었다. 제1조 우표 도안은 각각 '사쿠라노 미야 모엔지 개운뱀선생'(櫻之宮母恩寺开运蛇先生)과 '도쿄 아사쿠사 관음후 아사쿠사 신사뱀'(东京浅草观音后浅草神社蛇)이다.



제2조 우표 도안은 각각 '뱀, 조롱박과 매화', '뱀, 보물주머니와 매화' 등 소로 구성됐다.



한국, '진보와 성장'

중국 음력설을 맞이하여 한국우정은 14가지 새해 우표를 발행했다. 한국우정은 우표 도안중 앞으로 이동하는 뱀은 진보를 의미하고 꽃은 성장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세계 곳곳의 음력설맛이 풍경

2025년 중국 뱀해 음력설을 앞두고 여러 나라에서 음력설을 주제로 경축 행사와 문화체험 행사를 줄줄이 개최하고 있다. 중국 음력설은 2024년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 명부에 등재됐으며 이에 앞서 2023년 12월에는 유엔의 휴일로 확정되었다. 현재 음력설은 중국의 명절이자 세계의 명절이기도 하다. 오늘날 음력설 경축 행사는 성대한 글로벌 문화 행사의 하나로 성장하여 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있다.

브라질의 전지 작품

1월 18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중국 음력설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전지(剪紙)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어등

1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음력설맛이 행사에서 사람들이 어등(魚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헝가리의 중국화 그리기

1월 1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손끝의 무형문화유산-중국문화 체험의 날'을 주제로 열린 '2025 즐거운 음력설' 행사에서 사람들이 중국화 그리기를 체험하고 있다.

나이로비의 묘회

19일, 2025 나이로비 중국 음력설 묘회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막을 올렸다. 묘회에서는 룡춤, 사자춤, 민간 무용, 소림 공부(功夫) 공연 및 중국 미식 전시 등을 선보였다.



부다페스트의 묘회

18일과 19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중국거리에서 음력설 묘회가 열렸다. 헝가리 및 주변 지역에서 온 수만명 시민들이 함께 다가오는 뱀해 중국 음력설을 경축했다.

